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공공의료인력 양성·지원”

김관영 도지사, 중대본 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정부에 요청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방역회의 열고 재유행 대책 논의  
9월 2~4일 남원 개척 도민체전 관련 방역컨설팅 실시 검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또한 시·군 회의를 열고 백신접종을 제고와 진료 기관 확충 등을 주문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BA.5 변이 확산, 방역 감소 시기 도래, 거리 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새로운 유행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중대본)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차관, 시·도 지사가 모두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김관영 지사는 먼저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 감염병 대응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북대 감염관리센터와 같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시설·장비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인적 인프라를 확보해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 배정, 공공 의료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전공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지사의 건의에 따라 감염관리센터 인력이 더욱 확충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관영 지사는 중앙 회의 종료 후 14개 시장·군수들과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재유행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앞서 중대본 회의 때 정기서 국가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백신 접종시 중환자·사망자의 50%가 감소하고, 치료제 적기 부여 시 또 중환자·사망자의 50%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적기 부약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검사받고 쉽

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선별진료소 평일 연장·휴일 운영 검토, 검사·치료·처방이 하루에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비용이 높은 동네 특성상 요양병원·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무더위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의 정점이 8월 중순경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 공직자가 8월 20일까지 사적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에서 음·면 파견 접종을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최경식 남원시장은 9월 2~4일 남원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련, 방역 컨설팅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순창군과 남원시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마무리로 “도와 시군이 합심해서 대응하면 이번 재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시·군에 협력을”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장·군수들과 코로나19 방역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률 제고와 진료기관 확충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 ‘폭염 속 농작업은 위험’... 온열질환 주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주기적인 수분섭취 필요  
오후 12~5시 사이 야외·시설하우스 작업 금해야  
도, 농작물 관리요령 안내·재해보험 가입 홍보도

전북도에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돼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농업인들의 폭염대비를 적극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장마가 끝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22.1%) 증가했다.

특히, 농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은 평소 집에 가까운 병

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을 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체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또한, 전북도는 마른장마와 폭염이 지속돼 논 물마름 현상 발생률 시들음 현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 대응 요령도 소개했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갖춰졌으나, 천수답 등 물이 부족한 논은 2~3일 간격으로 얇게 물을 대주고, 물고 관리, 도랑 피복 등을 통해 물을 최대한 절감한다. 밭작물도 스프링클러 가동이나 벗짚, 부직포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고온성 해충을 대비한 사전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

과수는 점적관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과와 배 등의 과실이 강한 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햇빛 데임 현상(일소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카울린 또는 탄산칼슘을 과실 위주로 살포한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사과, 배, 마늘, 양파, 벼 등 농작물 67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이래, 매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남입 보험료는 정부가 50%, 전라북도가 15%, 시군이 15%를 부담해 농업인의 부담도 적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 지키기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4개 독립공원계획 변경

이달부터 주민에 사전 설명회 열고 용역 추진

내년 5월 공원계획변경안 조정·11월 최종 확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4개의 독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2023~2032년) 4개 공원(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에 대한 공원구역의 해체·편입과 생태적 가치에 따른 공원 용도지구를 검토·조정하고 관할 시·군의 공원시설 계획 등을 반영한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적 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7월부터 공원시설계획, 공원구역 해체나 용도지구 조정 등 관할 시·군의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8월에는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목적,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기반 평가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독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 산림, 지형 경관,

환경단체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내년 5월 이후에는 도면 열람, 주민 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해당지역의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으로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정한다. 이후 전북도 독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부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11월 4개 독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유희숙 환경복지국장은 “자연공원법에 부합하며 전북도 4개 독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는 살리고 공원 제한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되도록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의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관할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